

最古 나한상 공개

동국대 박물관서 8월 14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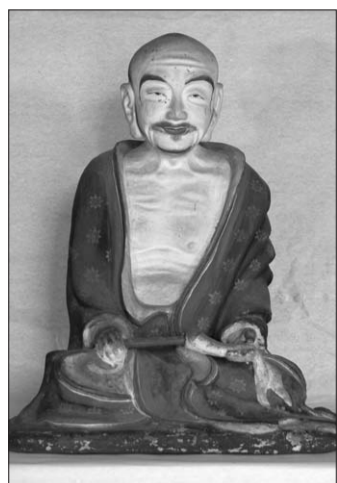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나한상이 처음 공개됐다.

동국대 박물관(관장 정우택)은 '남양주 흥국사 십육 나한상 특별공개전'을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박물관 제 2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흥국사 십육 나한상은 45~47cm 크기로 목조 채색했으며, 16존자 모두 상태가 양호하다.

동국대 박물관 관계자는 "동국대 박물관이 2007년 흥국사 불교미술품 조사 과정에서 흥국사 나한상이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송광사 나한상, 귀신사 나한상 등에 비해 훨씬 사실적이고 조형이 뛰어나다고 판단했다. 흥국사 나한상의 1650년과 1892년 중수기록으로 볼 때 최소 1600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흥국사 나한상 이전에는 1624년 제작된 순천 송광사 16나한



동국대 박물관이 전시중인 16나한 중 제 6존자상.

상(보물 제1549호)이 가장 오래된 나한상으로 알려져왔다. 관람시간은 월~토요일 10~16시. (02)2260-3462 조동섭기자

창립20주년 기념 교수불자대회

평창 월정사에서 8월 18~20일

'불교와 세계종교와의 대화'를 주제로 교수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홍표, 이하 교불련)는 8월 18~20일 평창 월정사에서 '2008 교수불자대회'를 연다.

교불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제학술대회와 신행활동 등이 함께 펼쳐진다. 18일 기조강연에는 교불련 초대회장을 역임한 고준환 교수(경기대)와 성낙승 총장(금강대)이 각각 '미래세계에서 불교의 역할'과 '한국 현대불교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강연한다. 산사음악회와 교불련 20년사를 평가하는 법석도 마련된다.

19일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에이몬 아담스 교수(런던대)가 '불교와 기독교와의 대화'를, 최일범 교수(성균관대)가 '불교와 유교와의 대화'를, 파나즈 모한 교수(시드니대)가 '불교와 힌두교와의 대화'를, 김홍철 교수(원광대)가 '불교와 신종교와의 대화'를, 강병조 교수(경북대)

가 '한국불교, 종교개혁 필요한가'를 주제로 불교와 세계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이병래 교수(충남대)의 '오가 수행의 이론과 방법'에 관한 신행 특강도 마련됐다.

20일 분과별 자유주제 발표에는 참가 교수불자들이 각자의 분야와 불교에 대한 답문을 펼친다. ▲제1분과 '정치경제 문제와 불교' ▲제2분과 '인간심리와 불교' ▲제3분과 '문화 예술과 불교' ▲제4분과 '과학과 불교' ▲제5분과 '교육, 사회복지 문제와 불교' ▲제6분과 '불교와 사회윤리' ▲제7분과 '불교경전과 교학연구'로 나뉘어, 이인자 교수(경기대), 우희종 교수(서울대), 권탄준 교수(금강대), 김범수 교수(인하대), 신성현 교수(동국대) 등이 진행한다.

참가는 교불련 회원 및 가족, 대학 강사, 연구기관 연구원 및 대학원생에 한해 7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02)720-6618 gby1988@hanmail.net 조동섭 기자

티베트불교 연구 불 붙었다

양승규 박사 등 학진 창의주제 연구 선정

2008년 티베트 유혈 사태 발생으로 티베트에 전세계 시선이 집중됐다. 하지만 국내 티베트불교 연구는 허일범, 주민환 등 불교학자에 의해 간간히 이뤄졌을 뿐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 전락한 티베트인 위상처럼 미진했다. 교계 한 연구자는 "국내 티베트불교 연구 현실은 선행 연구 부족과 전공자 부재 때문"이라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신진학자 4인이 본격적인 티베트 연구에 나서 관심을 끈다.

국내에서 처음 본격적인 티베트불교 연구를 시작한 주역은 양승규 박사(동국대), 차상엽 박사(금강대), 김성수 박사(연세대), 최동순 박사(동국대)다. 양 박사와 차 박사는 티베트불교 사상 전공자로, 김성수 박사는 티베트불교사 전공자로, 최동순 박사는 명상 전공자로 연구에 참여한다. 이들은 '티베트의 불교철학과 실천체계 연구'를 주제로 7월 7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공모한 '인문사회분야 기초연구 창의주제연구'에 선정돼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2년 동안 티베트불교의 학술적 정립을 시도한다.

양승규 박사는 "베이징과 티베트 라싸를 연결하는 청장철도 개통과 함께 티베트를 찾는 관광객 수 만큼 티베트를 이해하려는 움직임도 커졌다"면서, "단순한 안내와 정보차원을 넘은 티베트 문화에 대한 학술자료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티베트불교 연구는 기반연구와 실천체계연구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년도에 진행할 기반연구에서는 티베트불교 성립과 교학적 배경, 티베트불교 4대 종파의 교의체계, 티베트불교의 문화와 예술, 달라이 라마의 삶과 철학을 중심으로 인도와 티베트 간 문화적 요인을 연구한다.

양 박사는 "이슬람 침입 등으로 인도 학생들이 티베트로 이동하면서 티베트에서는 중관 논리체계와 밀교 수행자제를 통한 현실(顯密)이 조화를 이뤘다"며, "티베트 4대 종파인 남파파, 싸까파, 까규파, 겐룩파에 대한 교리적 특징을 정리할 것"이라 설명했다.



본격적인 티베트불교 연구에 나선 양승규 박사(우측)과 최동순 박사.

2차년도 실천체계연구에서는 티베트불교 명상법 절차와 배경, 람입 수행체계, <입보리행론>의 대승불교 실천론, <티베트 사자의 서>에 나타난 티베트인의 생사관 연구를 통해 대승보살의 육바라밀 실천이 티베트 이타주의 문화로 발전한 과정을 규명할 예정이다.

양승규 박사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티베트불교 기반의 수행공동체가 급증하고 있다. 대학의 불교연구자들도 티베트불교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 박사는 "서구의 티베트불교 연구 열풍은 티베트불교가 인종, 폭력, 환경 문제 등 현실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며, "서구인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티베트불교 연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일본인 의식 근간은 조선성리학"

김승일 연구교수, 법화학천태학 학술강연회서

일본의 독도 시비로 한·일 양국의 역사적 관계에 관한 전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때 조선 성리학 이념이 일본 막부 정책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김승일 연구교수(국민대는 7월 19일 동국대에서 열린 법화학천태학회(회장 리영자) 학술 발표회에서 '조선성리학이 일본 불교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김 연구교수는 "조선성리학의 사변논리가 일본 도쿠가와 막부에서 질서유지책으로 사용됐다. 도쿠가와 막부는 이를 위해 불교를 조직화해 체계적 지배를 실현했고, 형식화된 불교는 선종

사회논리 속에 생활불교화 했다"고 주장했다.

김승일 연구교수는 "일본 선종 승려들은 조선성리학 통치이념화 및 사회의식 구조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일본인의 정체성 확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연구교수는 '정직'과 '실용'을 근본으로 한 자본주의의식을 일본인 의식의 근간으로 설명했다. 김승일 연구교수는 사뮤엘 웰링턴의 '일본문명'을 인용하며 "정직"과 '실용'을 근간으로 일본이 근대화할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조선성리학 때문이었다"고 역설했다.

조동섭 기자

금동미륵보살반가상 유럽 간다

벨기에 브뤼셀서 10월 9일부터

한국미술의 걸작으로 꼽히는 국보 제78호와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이 2008년 10월 유럽 나들이 간다.

정부는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이 신청한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등 국가 지정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 119건 206점의 국외반출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을 비롯해 신라 금동관음보살입상, 백제 산수문헌, 조선 <묘법연화경> 등은 10월 9일부터 2009년 1월 1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국 불교미술 특별전'에 전시된다.

한편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의 해외 나들이는 1960년대부터 한국 문화의 해외홍보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국 불교 미술특별전'에 열리는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번 브뤼셀 전시가 일곱 번째 나들이다. 조동섭 기자

'불교의 역사적 이해'

조성택 교수 특강

'불교란 무엇인가' '붓다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조성택 교수(고려대)가 해답을 제시한다.

조성택 교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마련한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 강좌' 시리즈에 초청돼 7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강연한다. 강연은 ▲7월 26일 역사적 붓다 ▲8월 2일 붓다 ▲8월 9일 무불(無佛)시대의 '붓다들' ▲8월 16일 경쟁하는 '붓다들': 미륵과 아미타불 ▲8월 23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02)739-1223 조동섭 기자

힘든병마 때문에

여러가지 건강방법을 행하여 보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시달리는 분은 푸른샘에서 선대의 비법을 토대로 오랜 수행적 경험과 체험으로 연구한 "해빙내춘(茶)"을 드시면서 푸른샘 운동법과 푸른샘 호흡법을 행하여 보세요. 참 좋은 자연력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다스릴 때에 마음의 평화는 부드러운 차를 마시면 화를 다스리기 쉬워지고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대로부터 仙人들이 마신다는 아생 산야초인 버섯, 상엽 상심 인삼 국화 복분자 두충 동글레 구기자 하수오 등은 포박자라는 책에 보면 수행하시는 선인들이 즐겨 드신다고 합니다.

선대로부터 내려온 산야초들을 모아 수행에 좋은 차를 만들었습니다. 해빙내춘(차)는 마음의 평화와 수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차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모든 것이 더불어 편안해집니다.

◆ 구입문의 : 017-433-6523
◆ 소비자상담실 : 042)484-5538
◆ 취 급 : 약국, 찻집, 건강센터, 자연업 등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아주 특별한 영지유의 세계!!

전생·빙의

인간 잠재의식 직접 조절 - 강력한 개선 효과!!
자기 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잠재의식속에 숨겨진 심리적 근원을 밝혀 인간을 변화시키는 최면의 위력"

빙의치유

▶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영가와 대화해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 전생 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재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 한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ICTH)
심리상담 전문가,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거처: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의 실제, 최면요법 등

안내자로 및 공개특강
비디오테이프
보내 드립니다.
테이프 발송비 10,000원

현재
접수중

서울 02)582-0737
강남 선릉역3번출구 선릉타워9층
대전 042)222-0737
대사동 서대전역7번출구 청운빌딩2층

미국최면전문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한국최면과학원 대표전화 : 1544~2741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